

# 순천시시가 선암사 망치고 있다

## 부실공사에 성보 도난까지... 순천시, 재산관리 '허술'

### 조계·태고종, 선암사 분규 해결 논의 급물살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시 성보문화재단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선암사 재산을 가로채기 한 것으로 드러나 불의를 빚고 있다.

순천 선암사는 13일 재산관리권 환수를 요구한데 이어 순천시는 재산관리권 포기의 뜻을 밝혔다.

순천 선암사는 조계종으로 등기됐으나 태고종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찰로 1970년 당시 무화공보부가 순천시에 재산관리를 지정했다. 현재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과 성보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선암사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재산관리에 부실이 드러났으며 △선암사 성보문화재단에 대한 전면 재조사 △선암사 및 성보박물관 관리운영권 선암사 이양 △야생차 체험관 운영권 이전 △관람료 및 주차장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과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

장, 양말심 선암사 신도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성보관리 엉망, 도난 및 진위 논란

선암사 대변인 도월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순천시장이 선암사 성보박물관장 겸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암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암사 성보박물관에는 전문 학예사가 전무하고 임시직 1명만이 있었다. 관리부실로 수장고에는 외부인 출입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월 스님은 "선암사 성보문화재단은 모두 진위여부에 의혹이 있다. 문화재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암사 측은 원통전 불상 위조 등 선암사 문화재 도난에 관계된 전 주지 지허 스님이 주지 및 성보박물관장을 하며 성보의 문화재등록을 기피했으며 재산관리를 순천시가 이어 받으며 이후 성보박물관 자체가 방치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도월 스님은 "최근 순천시장은 선암사도 모르게 문화재 6점을 의

부에 전사하기도 했다"며 "교회 안 수집사인 순천시장이 성보박물관장을 맡은 이후 문화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순천시장이 박물관장으로 있으면서 없어진 유물을 낱알이 밝혀야 한다"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선암사 성보박물관의 소장유물을 재조 사해 진위 여부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시에서는 성보박물관 관리부실에 책임을 지고 선암사에 운영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암사 재산 유증의혹도

순천시는 재산관리를 맡으며 재현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등기 상으로 선암사로 등재된 곳 만을 관리해 재산 유실도 발생했다. 순천시에 위촉한 선암사 말사 향림사의 경우는 도지세를 순천시가 관리하며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10여 년

간 약 110 억대의 복원 및 신축 불사가 진행됐는데 부실공사가 진행됐음이 드러났음에도 순천시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계속 맡긴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경내에 야생차체 합관을 조성한 뒤 등기를 순천시로 등록해 순천시장의 영빈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선암사 측은 순천시가 독자적으로 사찰 입구 매표소에서 주차비와 관람료를 징수해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람료 사용내역을 비롯한 재산관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조계종단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순천시의 재산관리 지정 해제를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조·태 선암사 문제 논의 시작

40여년 간의 조·태 분규로 외부의 손에 맡겨진 삼보정재가 유실될 처지에 처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조계종 중앙종회 순천선암사문제 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는 12월 7일 회의를 열고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15일 선암사에 공문을 보내 "조계종과 태고종 각 5인 규모로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암사 문제를 협의 하자"고 요청했다.

조계종 선암사특위 소위는 위원장 일문 스님과 덕문 스님(조계종 선암사 주지), 정법·종호·성일 스님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 요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5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곧바로 조계종과 정식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암사는 최근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으로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간의 관리부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이다. 순천시는 관리인 자격 반환 전까지 그간의 모든 재산목록과 현황을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화쟁위, "국민을 종으로 취급 말라"

## 4대강 예산 여당 단독처리 비판... 화쟁불사 천명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를 '국민을 종으로 취급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모든 역할을 동원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태의 진상을 알리겠다고 천명했다.

12월 16일 화쟁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 원택 스님, 총무원장 법안 스님이 참석했다.

화쟁위원회는 4대강 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적논의위원회 참여와 종교계 중재안 마련 TF를 설치했지만 예산안 단독처리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화쟁위는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세력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겠다고 천명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야단을 쳐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앞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발로참회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불교도들이 이 문제의 실상을 제대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오른쪽) 정부·여당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로 알고 주된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모든 역할을 총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화쟁위원회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불교도의 총령의 그릇된 신앙관이 국민적·사회적 갈등을 위해 화쟁불사의 기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국민적논의위원회 지속 여부에 대해 화쟁위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안들을 더 세밀히 검

토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쟁위원회는 10월 18일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공식제안한 뒤, 한나라당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2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갖고 종교계 중재안을 마련해 12월 20일 까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2월 8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박기범 기자



### 범어사 천왕문 방화로 전소

부산 범어사 천왕문이 12월 15일 오후9시 50분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됐다. 화재는 소방차 30여 대 소방관 7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에 걸쳐 진화됐지만 목조건물인 사천왕문은 전소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CCTV에 찍힌 남자 용의자를 공개수배 중이다. 사건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06년 개신교 집회에서 "범어사를 포함한 부산 사찰 (94개)이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던 동영상인 유포되면서, "개신교 광신도가 이번 방화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글=이상원 기자 (사진제공=범어사)

# 4대 종단 4대강 저지 손 잡다

## 시민불복종·상품불매운동 전개

4대 종단 연대회의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운동, 관련 기업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로 구성된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는 12월 17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생명을 위한 저류한 저항-시민불복종운동, 상품불매운동'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인 조해봉 신부는 "폭력과 같은 4대강 개발 사업을 재고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국

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 상황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주인을 무시하는 심부름꾼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정권 불신임 운동과 4대강 개발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도 "불교의 중요 계율인 불살생을 어기는 이명박 정부를 불자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장로 대총령의 그릇된 신앙관이 국민적·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원불교 환경연대 흥현두 교무는 "다음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원불교 환경연대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 스님이 만든 생식

공유 50%를 받아서진 호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개 (15(40g) x 60개 (2개월분)) 100,000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 2010년 한국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여름에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연말부터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차이지만 일 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승냥처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2010년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가격	
구분	보이차 300g
할인 가격	25,000원 → 15,000원
할인 기간	1월 31일까지
차 만든 시기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 2010년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 농림수산식품부 정태평장관과의 오찬간담회 6월 12일

▲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 참가

▲ 일본 기타나고야 시장 방문

▲ 2010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초의선사학술세미나

▲ 초의학술문화원-목포우체국 업무협약서명 7월 22일

▲ 평택시에정교육관 한국 보이차 다실쇼 6월 17일

▲ G20 정상회의기념 어린이 행복법 시연

▲ 청와대 사랑채 디도 체험

▲ 청와대 사랑채 행사 시연 및 무로시을 행사

청와대사랑채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다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